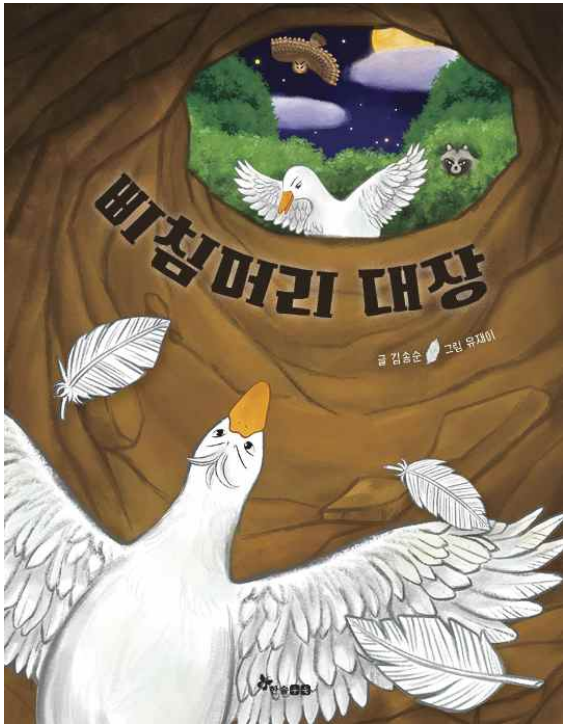


빼침머리 대장

글 김송순 | 그림 유재이

- 주제어 : 친구, 용기, 연대, 성장, 희망, 생명, 동물
- 대상 학년 : 초등 1~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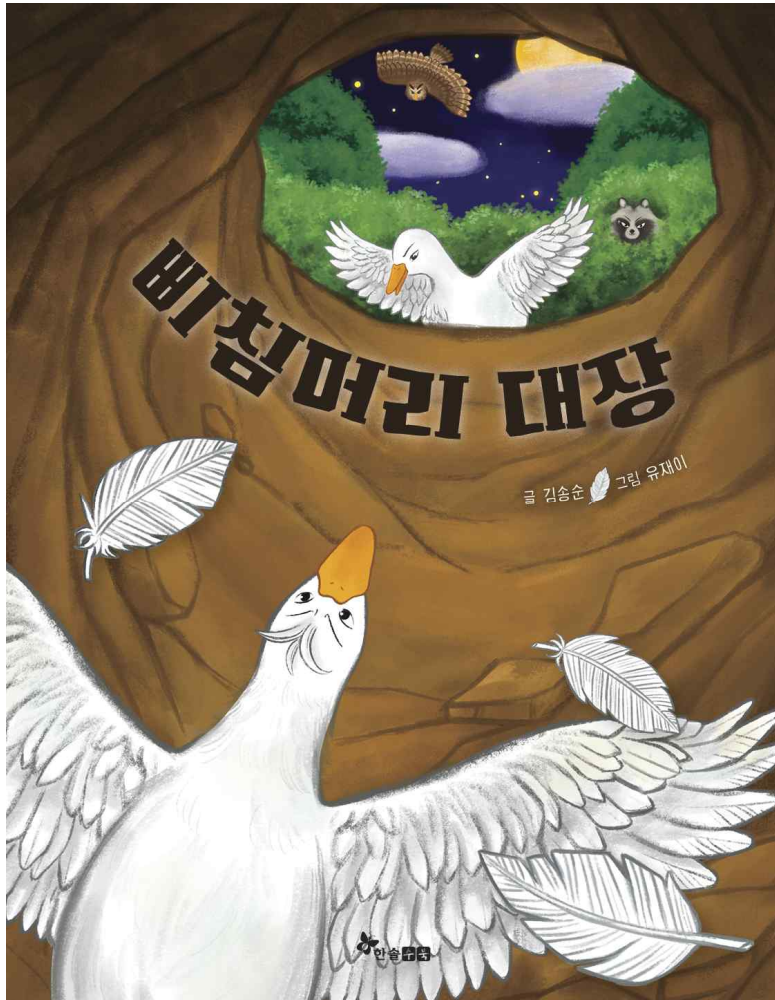
단계	활동	세부 내용
독서 전	표지 보고 이야기 상상하기	- 표지 살펴보고 이야기 상상하기
	작가의 말과 차례 보기	- 작가의 말과 차례를 살펴보고 내용 짐작하기
	청둥오리의 후손, 집오리	- 청둥오리와 집오리에 대한 배경지식 쌓기
독서 중	빼침머리와 친구들	-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 살펴보기
	누군가를 도운 적이 있나요?	- 누군가를 도왔던 경험을 써 보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 빼침머리와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을 구분하기
	빠진 낱말 채우기	- 문장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서 써 보기
	너의 마음은?	- 등장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기
독서 후	○○에게 보내는 편지	-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이어질 이야기를 만화로 그리기	-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고 만화로 그려 보기

표지 보고 이야기 상상하기

학년 반

이름

◆ 표지를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표지에 어떤 동물들이 있나요?

2.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3. 제목과 그림을 보니,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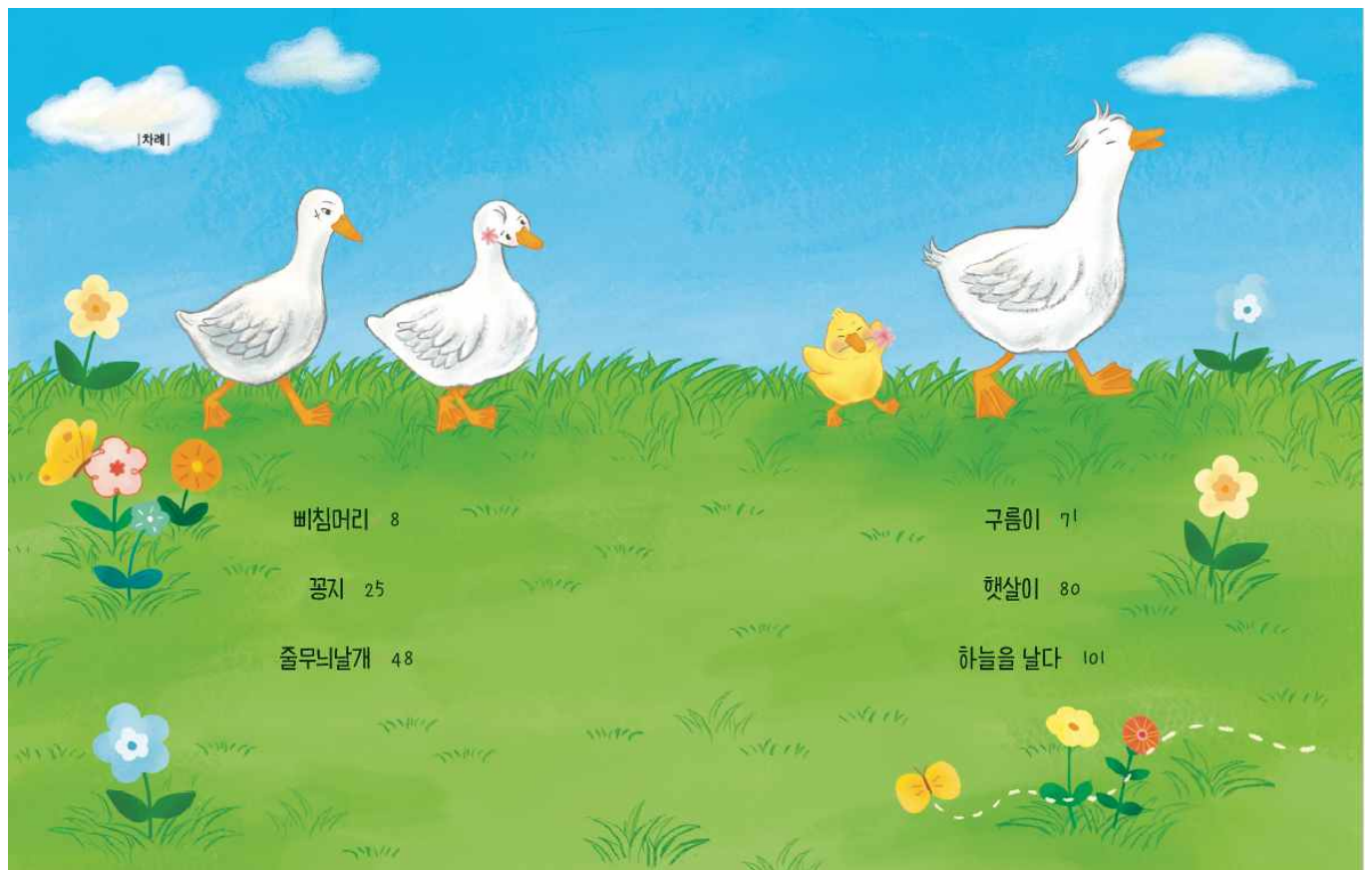
작가의 말과 차례 보기

학년 반

이름

◆ 작가의 말을 읽어 보고, 어떤 내용일지 짐작해서 써 보세요.

◆ 차례를 살펴보세요. 장 제목에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림에 있는 오리들의 이름이 무엇일지 옆에 써 보세요.



청둥오리의 후손, 집오리

학년 반

이름

◆ 아래의 글을 읽고, 인터넷에서 청둥오리와 집오리를 검색해서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청둥오리와 집오리의 특징을 각각 적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집오리는 청둥오리의 후손입니다. 물가에서 야생으로 살아가던 청둥오리를 사람들이 잡아다 길들인 것입니다. 청둥오리를 가장 먼저 가축으로 키운 사람들은 기원전 3000년쯤의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기원전 400년쯤에 고기를 먹기 위해 길들였다는 기록이 있고, 중국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오리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을 두고 더 많은 알과 고기를 얻기 위해 개량과 개량을 거듭하여 오늘날의 집오리가 된 것입니다.

청둥오리는 강이나 저수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야생 오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오리류 중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종이며 겨울 철새이자 텃새입니다.

청둥오리는 대개 4월에서 7월 사이에 짝짓기 하고, 물가의 풀숲에 둥지를 만듭니다. 알 낳을 자리는 자기의 가슴과 배에서 털을 뽑아 만들고, 거기에 알을 10개쯤 낳습니다. 암컷이 알을 도맡아 품는데 보통 품은 지 28일이면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옵니다. 먹이는 물속에 사는 곤충이나 물고기, 물풀, 그리고 식물의 씨 따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키우는 집오리에게는 아직도 조상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밤에도 깨어 있는 일이 많든지, 낯선 사람이나 동물이 오면 큰 소리로 운다든지, 또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청둥오리

집오리

삐침머리와 친구들

학년 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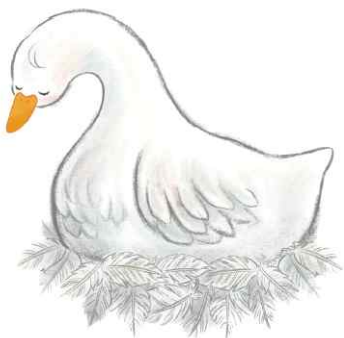
◆ 삐침머리와 친구들의 성격과 특징을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



삐침머리는



꽁지는



구름이는



햇살이는

누군가를 도운 적이 있나요?

학년 반

이름

◆ 구덩이에 버려진 빠침머리는 콩지의 도움으로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빠침머리와 콩지는 다친 구름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살폈지요. 여러분은 빠침머리와 콩지처럼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나요? 또는 누군가와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성공한 기억이 있나요? 그 경험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 보세요. 그때 느꼈던 기분과 생각도 적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학년 반	
	이름	

◆ 아래의 내용을 읽고 맞는 내용에는 ○, 틀린 내용에는 X 표시를 해 보세요.

1. 농장에서 살던 빠침머리는 산 아래 구덩이에 버려졌어요.	
2. 꽃잎이는 빠침머리와 함께 구덩이에서 탈출했어요.	
3. 콩지는 농장이 싫어서 스스로 도망쳐 산속에 살고 있어요.	
4. 빠침머리와 콩지는 모두 수컷 오리예요.	
5. 콩지는 언덕 너머에 있는 개울로 날아가는 게 꿈이었어요.	
6. 콩지는 빠침머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7. 초록머리(줄무늬날개)는 콩지에게 개울에 가면 헤엄도 칠 수 있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8. 빠침머리는 산속에 버려진 뒤 농장에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어요.	
9. 빠침머리는 구덩이에 버려진 구름이를 모른 체했어요.	
10. 빠침머리는 너구리에게 공격당하는 콩지를 구하기 위해 힘껏 싸웠어요.	
11. 검둥이는 너구리에게 공격당하는 빠침머리를 구해 주지 않았어요.	
12. 구름이는 햇살이의 엄마예요.	
13. 빠침머리는 점점 더 용감해졌고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14. 햇살이는 나는 걸 싫어했어요.	
15. 구름이와 햇살이는 언덕 너머 개울로 날아갔어요.	

빠진 낱말 채우기

학년 반

이름

◆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적어 보세요.

1. 빠침머리는 손수레에 실려 나간 오리랑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2. 빠침머리는 를 몇 번 퍼덕이다가 풀썩 주저앉았어요. 구덩이가 좁아서 자꾸 벽에 부딪쳤거든요.

3. 부엉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이를 움켜잡더니 밖으로 날아갔어요.

4. 구름이가 을 낳았어요.

5. 속에서 달려 나온 햇살이가 구름이 품속으로 파고들었어요.

6. 콩지가 알려 준 대로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지, 햇살이 몸이 안에서 등등 떠다녔어요.

7. 드디어 콩지랑 햇살이가 에 가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8. 빠침머리와 구름이는 서둘러 언덕을 내려왔어요. 새로운 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웅덩이

꿈

개울

구덩이

알

식구

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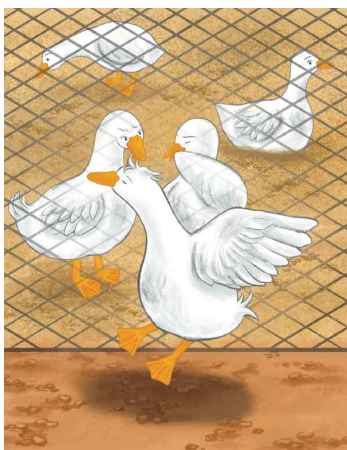
가시덤불

너의 마음은?

학년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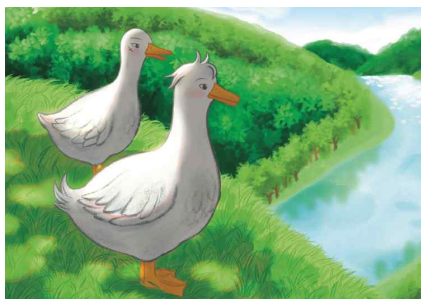
이름

◆ 각각의 그림 속 상황에서 등장인물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적어 보세요.



빼침머리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공지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구름이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에게 보내는 편지	학년 반	
	이름	

○○에게 보내는 편지	학년 반	
	이름	

○○에게 보내는 편지	학년 반	
	이름	

◆ 이야기를 떠올리며 등장인물 중 한 명을 골라 편지를 써 보세요.

[illegible]

이어질 이야기를 만화로 그리기	학년 반	
	이름	

◆ 콩지와 햇살이는 개울로 날아가고 빠침머리와 구름이는 산에 남았어요. 그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해 보고 만화로 그려 보세요.

[정답]

◆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 OX 퀴즈

1. 농장에서 살던 빠침머리는 산 아래 구덩이에 버려졌어요.	O
2. 꽃잎이는 빠침머리와 함께 구덩이에서 탈출했어요.	X
3. 콩지는 농장이 싫어서 스스로 도망쳐 산속에 살고 있어요.	X
4. 빠침머리와 콩지는 모두 수컷 오리예요.	X
5. 콩지는 언덕 너머에 있는 개울로 날아가는 게 꿈이었어요.	O
6. 콩지는 빠침머리에겐 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O
7. 초록머리(줄무늬날개)는 콩지에게 개울에 가면 헤엄도 칠 수 있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O
8. 빠침머리는 산속에 버려진 뒤 농장에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어요.	X
9. 빠침머리는 구덩이에 버려진 구름이를 모른 채했어요.	X
10. 빠침머리는 너구리에게 공격당하는 콩지를 구하기 위해 힘껏 싸웠어요.	O
11. 검둥이는 너구리에게 공격당하는 빠침머리를 구해 주지 않았어요.	X
12. 구름이는 햇살이의 엄마예요.	O
13. 빠침머리는 점점 더 용감해졌고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O
14. 햇살이는 나는 걸 싫어했어요.	X
15. 구름이와 햇살이는 언덕 너머 개울로 날아갔어요.	X

◆ 빠진 낱말 채우기

1. 빠침머리는 손수레에 실려 나간 오리랑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2. 빠침머리는 **날개**를 몇 번 퍼덕이다가 풀썩 주저앉았어요. 구덩이가 좁아서 자꾸 벽에 부딪쳤거든요.
3. 부엉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이를 움켜잡더니 **구덩이** 밖으로 날아갔어요.
4. 구름이가 **알**을 낳았어요.
5. **가시덤불** 속에서 달려 나온 햇살이가 구름이 품속으로 파고들었어요.
6. 콩지가 알려 준 대로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지, 햇살이 몸이 **웅덩이** 안에서 둥둥 떠다녔어요.
7. 드디어 콩지랑 햇살이가 **개울**에 가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8. 빠침머리와 구름이는 서둘러 언덕을 내려왔어요. 새로운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